

한승혁, 슬라이더 다듬어 4선발 굳힌다



KIA 타이거즈의 한승혁이 3일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즌 4번째 선발 등판에 나선다. 앞선 kt전에서는 156km의 강속구와 매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6이닝 2실점으로 1468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자들 유인할 확실한 결정구로 활용

“투·타 동반 침체 위기의 팀 구하겠다”



슬라이더다.

한승혁은 3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로 출격한다. 올 시즌 5번째 등판이자 4번째 선발 경기다.

시즌 전만 해도 선발 후보에 한승혁의 이름은 없었다. 여기에 허벅지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서 중도 귀국하면서 아예 엔트리 구상에서도 이름이 제외됐었다.

그러나 4·5선발의 부진 속에 한승혁이 기회를 얻었다. 엔트리 등록과 함께 4월 4일 SK 원정경기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그는 4이닝 1실점의 호투로 팀의 3연패를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세 경기에서 한승혁의 자리는 선발이었다. 한화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으로 괜찮은 성적을 낸 그는 막강 두산 타선에 맞혀 4.1이닝 6실점으로 주춤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kt원정에서는 6이닝

을 2실점으로 막으면서 1468일 만에 선발 승을 기록했다. 한승혁의 호투에 힘입은 팀은 8-3으로 승리하면서 양현종 완투패의 충격을 털어낼 수 있었다.

앞선 등판에서 속제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던 한승혁은 이번 롯데전을 통해 확실한 선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결과를 좌우할 결정구는 한승혁을 상징하는 강속구도, 주로 구사했던 변화구인 포크볼도, 신(新)무기 커브도 아닌 슬라이더다.

한승혁은 올 시즌 최고 157km의 강속구를 뿌리면서 KBO리그 평균구속(151km)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포크볼을 주로 던졌던 한승혁은 올 시즌 커브를 장착하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뺏고 있다. 구속 차이가 40km에 이르면서 타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승혁은 “타자들이 직구만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안다. 타자들이 빠르다고 진다(웃음). 커브를 던지면서 수싸움을 하는 게 더 편해졌다”면서도 “커브는 타자들이 빠른 공을 보고 나서 바로 반응하기에 쉽지 않은 공이라는 하지만 컨트를 잡기가 어렵다. 여기에 타자들이 (내가) 불러한 볼카운트에서는 아예 커브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켜본다”고 설명했다.

커브라는 유인구가 더해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게 한승혁의 설명이다. 그 무기가 바로 슬라이더다.

한승혁은 “지난 등판 때는 슬라이더가 좋았다. 그래서 경기를 더 잘 풀어갈 수 있었다”며 “직구만 보고 있으니까 직구처럼 가다가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바로 방망이를 끌어내는 데 좋다. 커브를 카운트 잡는데 활용한다면, 방망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더가 필요하다. 주자가 있을 때도 빠르고 짧게 떨어지는 변화구로 승부해야 하기도 한다. 투구수를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KIA는 투·타의 불균형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발 투수들이 잘 던지고도 고개를 숙이는 날도 많다. 동반 침체의 위기에 팀은 한승혁은 마운드 분위기를 띄우는 새 멤버였다. 하지만 앞선 시즌들을 돌아보면 ‘기복’이 한승혁의 가장 큰 약점이자 속제다.

한승혁은 “많은 분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대하시는 데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실망시키드릴까봐 걱정도 된다. 꾸준한 모습으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선발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공을 던지는 감도 좋아지고, 경기를 풀어가는 부분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 선발이라는 책임감이 무겁다.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30일내 복귀 준비 마칠 수도”

피츠버그 허들 감독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강정호(31·사진) 복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클린트 허들 감독은 “강정호가 30일 내로 복귀 준비를 마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보며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MLB닷컴은 2일 “피츠버그가 1일 공식적으로 강정호의 훈련장 합류를 밝혔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훈련장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들턴에서 훈련 중”이라며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늦은 스프링캠프를 빨리 마치고 팀에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허들 감독은 “강정호의 팔과 다리 등 몸 상태가 올라오고 정상적인 스윙이 가능해져야 경기에 내보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복귀 과정을 30일 내로 마칠 수 있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 “경기 감각이 크게 떨어진 강정호가 올



시즌 내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지 언론의 비판론과는 다른 견해다.

2014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피츠버그에 입단한 강정호는 데뷔 첫해인 2015년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해 주전 3루수를 꿰찼고, 2016년에는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내야수’로 주가를 올린 강정호는 곧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 사고를 냈다.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까지 알려졌다. 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는 강정호의 취업비자 발급을 거절했고, 강정호는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꾸준히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노력한 강정호는 최근 비자를 얻고 피츠버그에 복귀했다. 다음 목표는 메이저리그 복귀다. 강정호는 2016년 10월 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이후 1년 7개월 동안 빅리그 무대에 서지 못했다. 빅리그 복귀 시점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피츠버그는 일단 이번 주 내로 강정호의 몸 상태를 점검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짤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현, 클레이코트서 나달 꺾을 8인”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위·한국체대)이 ‘클레이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을 잡을 수 있을까.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일 ‘클레이코트에서 나달을 꺾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나달의 클레이코트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 만한 선수 8명을 소개했다.

정현도 8명 안에 이름을 올리며 ‘이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나달은 클레이코트 대회에서 19연승, 46세트 연속 승리 등 그야말로 거침없는 모습이다. 올해 두 차례 출전한 클레이코트 대회인 롤레스 마스터스와 바르셀로나 오픈에서 모두 무실세트 우승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투어 단식에서 77회 우승한 나달은 그 가운데 55번을 클레이코트에서 일궈내는 등 ‘흙’에서 유독 강한 모습이 다.

나달과 함께 남자 테니스의 ‘빅4’로 불렸던 선수들 가운데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는 올해 클레이코트 대회 불참을 선언했고, 노바크 조코비치(12위·세르비아)와 앤디 머리(39위·영국)는 부상이 겹치면

서 부진에 빠져 있어 올해 클레이코트에서 나달을 견제할 선수가 마땅치 않다.

ESPN은 8번째로 정현을 거론하며 “정현은 21세 이하 선수 가운데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와 함께 최강자의 자리를 다투는 선수다. 나달과 같은 수비형 선수로 체력이 뛰어나다”며 “공격력이 다소 부족하고 서브나 ‘킬링 샷’도 약한 편이지만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이겨려는) 기질이 대단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거론된 즈베레프는 현재 세계 랭킹 3위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다.

정현은 지금까지 나달과 두 차례 만나 모두 패했다. 지난해 클레이코트 대회인 바르셀로나 오픈 8강에서 0-2(6-7(1-7) 2-6)로 졌고, 하드코트 대회인 파리 마스터스에서도 0-2(5-7 3-6)로 패했다.

ESPN은 정현과 즈베레프 외에 마린 칠리치(4위·크로아티아), 그리고르 디미트로프(5위·불가리아), 후안 마르틴 델 포트로(6위·아르헨티나), 도미니크 팀(7위·오스트리아), 존 이스너(9위·미국), 파비오 포그니니(19위·이탈리아)를 나달을 클레이코트에서 괴롭힐 수 있는 선수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웬블턴 테니스 1회전 저도

상금 5700만원 받는다

올해 웬블턴 테니스대회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해도 상금 3만9000파운드(약 5700만원)를 받는다.

웬블턴이 열리는 영국의 올 잉글랜드 클럽이 2일 발표한 올해 대회 상금에 따르면 총상금은 3400만 파운드(500억원)로 지난해 3160만 파운드에 비해 7.6% 올랐다.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33억 1000만원 정도 되는 225만 파운드를 준다. 단식 본선 1회전 탈락자에게도 3만9000파운드를 주는데 경기 도중 기권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에게는 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부상으로 인해 1회전 경기 시작에 앞서 기권할 경우 상금의 50%를 주고, 대기 순번에 있다가 다른 선수의 기권으로 합류하게 된 ‘러키 루저’에게 남은 절반을 준다.

이는 주요 메이저 대회마다 1회전 탈락 상금을 받기 위해 부상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출전을 강행, 성의 없이 몇 개임만 하고 기권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 데 따른 대비책이다. 올해 웬블턴은 7월 2일 개막한다. /연합뉴스